

## 이료교육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김 영 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안마업관련 위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료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료교육 현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이료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부적절한 맹학교 고등부 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에 부적합한 이료교육 내용, 맹학교 성인학생의 생활지도, 안마사의 낮은 학력 수준, 안마수련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이료교사 양성제도와 이료관련 연구기반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료교육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맹학교 고등부를 일반계열로 전환하고 둘째, 3년 과정 맹학교 전공과에서 안마사와 안마침사를 양성하며 셋째, 시각장애인 기술대학교를 설립 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이료교육 현황, 이료교육 문제, 이료교육 발전방안

### I. 서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각자 능력과 선택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6년 3월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총 194,056명이다. 등록 시각장애인들은 비록 장애등급, 장애 원인, 장애발생 시기, 현재 연령, 교육 수준, 개인의 능력 등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각장애로 인해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종사하던 직업마저도 포기해야 하며,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안마업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 거의 유일무이한 직업이며 시각장애인의 교육, 재할, 복지, 경제 활동,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13년 조선총독부 제생원 맹과에서 안마, 침, 구와 관련된 교과목을 채택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마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료교육이 시각장애교육에서 중추적인

\* 이 논문은 200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mmenc@chosun.ac.kr)

위치를 차지해 왔다. 중도시각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은 대다수가 장애발생 이전에 종사하던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하며, 대안이 없다는 것을 끝내 인정하면서 최후의 선택으로 안마업에 종사하기 위해 맹학교나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을 찾는다.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10개소 설립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관이 취업의 필요로 하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맹학교와 안마수련원이야말로 실제로는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1990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있어서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안마업을 유보고용 형태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이야말로 시각장애인의 복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성인의 소득원에서 안마업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두가 당장 생계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것이다. 안마업은 일과생활, 대화 주제, 미래 계획 등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생활양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안마업마저도 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스포츠마사지사, 경락마사지사, 발 관리사 등 불법 무자격안마사들의 집단 이익을 법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승인한 결과이다. 위헌 판결의 책임은 헌법재판소, 무자격 안마사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다.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전후로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1997년 IMF 사태 이후 더욱 확산된 불법 무자격 안마업을 단속하기는커녕 방임 또는 암묵적으로 조장해 왔다.

시각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상호보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오히려 확실한 법적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조속한 기간 내에 안마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원화시켜 가면서 안마시술소 위주의 영업 형태를 탈피해야 한다. 셋째, 이료교육을 개선하여 더욱 유능한 안마사를 배출시켜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안마업관련 위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료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우리나라 이료교육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이료교육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당면한 안마업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료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료교육, 안마업, 시각장애인 직업 등에 대한 주제에 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안마업을 단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 시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종사하는 의료 분야로 보아야 한다.
-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으로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를 추가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능한 안마사로 훈련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이료교육을 개선해 가야 한다.
-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안마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현재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장애 안마업을 이어받을 시각장애학생들의 직업 안정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서 모색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안마업을 위주로 시각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취업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 II. 이료교육의 현황

### 1. 일본

2003년 5월 현재 일본에는 맹학교가 국립 1개교, 사립 2개교, 공립 67개교, 총 70개교 있다. 일본의 맹학교 학생 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맹학교 학생 중 고등학교의 본과와 전공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맹학교 학생은 1970년에 약 11,000명이었으나 2003년 5월에는 3,88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3,882명 중 본과와 전공과를 합쳐 고등학생이 총 2,463명으로서 약 63%를 차지한다(Sashida et al., 2005).

일본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양성기관은 문부성이 관장하는 맹학교와 츠크바 기술대학교 그리고 후생성이 관장하는 이료양성소로 나눌 수 있다. 맹학교 고등부는 본과(보통과 또는 보건의료과)와 전공과(보건의료과와 이료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973년 이후 보통과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2003년 현재 모든 맹학교에서 보통과를 운영하고 있다. 맹학교 49개교는 보통과와 함께 보건의료과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과에서는 안마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할 뿐, 침사 또는 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맹학교 62개교에는 전공과를 설치하고 안마사 양성과정인 보건의료과와 안마사, 침사, 구사 양성과정인 이료과로 나누어 각각 3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맹학교 이외에도 2006년 4월에 3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한 츠크바 기술대학교 보건과학부 소속 보건학과의 침구학 전공을 통해 안마사, 침사, 구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http://www.tsukuba-tech.ac.jp>).

일본의 중도시각장애성인은 맹학교 전공과뿐만 아니라 후생성이 관장하는 의료양성소에서 안마사, 침사, 구사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후생성 산하 의료양성소는 전국적으로 국립 5개소, 사립 9개소, 총 14개소가 있는데 중도시각장애인의 최고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5년 과정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3년 과정의 훈련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안마·마사지·지압, 침, 구를 의료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 소지자 양성과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츠크바 기술대학교 후지 교수와의 면접, 2006. 7. 9).

일본에서는 안마사(안마·마사지·지압) 뿐만 아니라 침사와 구사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침사와 구사를 취득할 수 있다. 각 도·도·부·현 지사가 발급하던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을 후생성장관이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1993년 이후 맹학교 본과의 보건이료과, 전공과, 츠크바 기술해대학교, 후생성 소속 의료양성소 등 양성과정과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으로서 해부, 생리, 병리, 공중위생, 임상의학, 임상의학총론, 의료개론, 경락경혈학, 동양의학개론, 동양의학임상론 등 총 10 과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 종별에 따라 안마 이론, 침 이론, 구 이론이 추가된다. 맹학교 전공과의 경우 기초교양 14학점, 전공기초(해부, 생리 등), 전문과목 52학점(침술 등) 총 93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간호사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안인도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9세기말까지는 시각장애인만 이러한 자격들을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기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안마업, 침술업, 구술업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요구하여 1911년에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츠크바 기술대학교 후지 교수와의 면접, 2006. 7. 9). 정안인이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93학점을 졸업 이수 학점으로 하는 3년 과정의 의료양성소를 졸업해야 하며, 1993년 이후에는 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안마사법에 시각장애인 대비 정안인 양성 숫자를 1:3으로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1년에 양성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는 약 600명인데 비해 정안인 안마사 수는 약 1,800명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몇 가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안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은 과거에 비하면 정안인보다 안마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낮아지고 있고, 입지 조건이 정안인보다 불리한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정안인 안마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Sashida et al., 2005).

&lt;표 1&gt; 정안인 안마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총 수의 추이 비교

연도	정안인 안마사 수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
1988	52,751	34,768
1990	56,825	35,144
1992	58,655	35,495
1994	61,772	33,593
1996	64,640	33,430
1998	67,086	27,569
2000	69,237	27,551
2002	71,363	25,950

오늘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같이 일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무자격 안마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1960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무자격 안마사들이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일본에는 무자격 안마사들이 상존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정안인 안마사가 협력하여 무자격 안마사 단속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면서 경찰의 단속이 다소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츠쿠바 기술대학교 후지교수와의 면접, 2006. 7. 9).

2001년 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재가 시각장애인은 약 301,000명이고 그 중 경제활동연령 18-64세의 시각장애인은 107,000명이라고 한다. 또한, 18세 이상 전 연령의 시각장애인 취업자 수는 총 71,800명(약 24%)이며, 경제활동연령기 시각장애인 취업자 수는 53,900명(약 50%)이라고 한다. 18세 이상 전 연령에 걸쳐 이료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은 약 24,000명으로서 총 취업자 71,000명의 약 33%에 해당한다. 이료업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취업되어 있는 부문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으로서 12,000명(17%)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Sashida et al., 2005).

## 2. 한국

우리나라의 이료교육기관으로는 맹학교와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이 있다. 맹학교는 전국에 13개교가 있고 2005년 현재 고등부에서 안마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총 504명이었다(특수교육총연합회, 2005). 안마수련원은 서울에 본부 수련원과 대련원 파견 교육장,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등 7개 지부 부설 수련원 등 총 9개소이며, 안마수련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2006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201명이다.

맹학교는 조선 총독부 산하 제생원 맹아부에서 안마사, 침사, 구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이료교육 기관으로 존속해 왔다.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이 안마사, 침사, 구사 제도를 폐지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맹학교에서는 중학교와 사범과에서 이료교육을 계속 실시했다. 사범과가 폐지되고 1964년 서울맹학교에 고등부가 설치된 후 이료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시되다가 제2차 맹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된 1977년 이후 이료교육을 고등학교에서만 실시했다(김기창, 2004). 1977년, 전국에 고등부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4개교(서울맹학교, 대구광명학교, 청주맹학교, 부산맹학교)였으나 1984년 대전맹학교에 고등부가 설치된 이후 2001년 전북맹학교에 고등부가 설치됨으로써 전국에 있는 모든 맹학교가 고등부에서 이료교육을 하게 되었다(오재영, 2005).

이료교육기관인 맹학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전공과와 이료재활 과정의 설치이다. 이료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료전공과를 서울맹학교에서 1993년과 1994년에 1년 단위로 두 차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1995년 교육부로부터 이료전공과(3년제)를 인가받아 같은 해 3월에 수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공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맹학교, 대전맹학교, 부산맹학교, 청주맹학교, 한빛맹학교(음악), 강원명진학교 등 6개교이다. 서울맹학교와 대전맹학교의 전공과는 1998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운영 평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학생들에게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이료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료재활과정은 2001년 서울맹학교에서 최초로 설치,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맹학교 고등부 2학년에 편입하여 보통교과는 전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것을 인정받고, 졸업 연한 2년 동안 이료 과목을 위주로 교육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06년 현재 이료재활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맹학교, 강원명진학교, 대전맹학교, 광주세광학교, 인천해광학교, 목포 은광학교, 한빛맹학교 등 7개교이다.

안마수련원은 1972년 2월 16일에 대한안마사협회 부설로 개원되어 1974년 149명의 수료생을 처음 배출한 이후 우리나라 이료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안마수련원 본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고 1998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지부의 안마수련원, 2002년 울산, 2005년 대전 지부의 안마수련원이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대다수의 안마수련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으며 성인 시각장애인에게 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마수련원을 통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약 2,400 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전체 안마사 수가 약 6,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볼 때, 안마수련원이 그동안 안마사양성에 기여한 비중을 추산할 수 있다.

맹학교 이료재활과정(공식적으로 이료재활과정이 아니더라도 고등부 2학년에 편입한

학생도 포함) 167명과 안마수련원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들의 특성 및 이료교육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영일, 2006).

첫째, 두 집단은 성별, 현재 학년, 직업 경험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최종 학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있어서 안마수련원 학생은 평균 44세였고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은 평균 37세였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_{\{359\}} = -6.93, p < 0.001$ ). 최종 학력에 있어서 안마수련원 학생은 중졸(34.0%) 또는 고졸(46.4%)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은 고졸(58.4%) 또는 대졸(39.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X^2 = 60.44, p < 0.001$ ).

둘째, 안마수련원 학생과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의 시각장애관련 변인을 비교한 결과 장애등급과 재활훈련 경험 등에 있어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발생 연령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안마수련원 학생은 40대와 50대가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보다 더 많았고, 맹학교 이료재활과정생은 20대와 30대가 안마수련원 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X^2_{\{6\}} = 19.64, p < 0.01$ ).

셋째, 안마수련원 학생과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의 이료교육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중도실명자에게 안마업 추천 여부, 고용촉진공단 산하에 안마사 양성기관 설치, 안마사 자격시험 실시에 대해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선호하는 안마사 양성기관, 현재 안마사 양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안마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에 있어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선호하는 안마사 양성기관에 대해 안마수련원 학생은 83.4%가 안마수련원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은 83.6%가 맹학교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X^2_{\{1\}} = 160.40, p < 0.001$ ). 현재 안마사 양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안마수련원 학생은 평균 3.72였고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은 평균 3.28로서 이러한 차이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_{\{35\}} = -3.68, p < 0.001$ ). 안마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에 대해 안마수련원 학생은 63.4%가 중졸이라고 응답한 반면 맹학교 이료재활과정 학생은 69.7%가 고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X^2_{\{3\}} = 67.10, p < 0.001$ ).

### III. 이료교육 제도의 문제점

#### 1.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부적절한 맹학교 고등부 교육과정

지난 20여 년 동안 맹학교 고등부 교육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다. 고등부를 설치한 맹학교 수 증가, 전공과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 진학반 지도 강화, 이료 재활과정 운영, 이료교사 수 증가, 이료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서울맹학교의 인문반 실시 등이 그러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안마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맹학교 고등부의 이료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근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맹학교 고등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료교육 위주의 맹학교 고등부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한 진로지도가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학교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각중복장애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맹학교에서는 이료교육이 중심이지만 학생들은 점차 이료교과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 하면 무시협검정에 의해 안마사 자격은 졸업과 함께 주어지고, 안마업은 최후의 생계 수단이며 안마시술소 이외에 다른 안마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안마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최근의 추세, 시각장애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 상승,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로 인한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맹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학 준비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각장애학생이 맹학교 고등부로 전학하여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없는 것이 맹학교 고등부 교육의 현실이다.

#### 2.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에 부적합한 이료교육 내용

맹학교와 안마수련원의 이료교육 내용은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기창, 2004; 김종환, 2000; 오재영, 2005). 전국 맹학교 고등부 학생 총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종환, 2000)에 의하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용어와 내용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138명(44.5%),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워 흥미가 없다"라는 응답이 108명(34.8%)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료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국 맹학교 고등부 3학년 학생 총 169명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연구(김기창, 2003)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료과 수업을 "매우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 "대체로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인 반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6%로 나타났다. 이료교과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이료교과의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 "참고서적이 부족하기 때문", "이료교과의 용어가 주로 한자어나 외래어로 되어 있기 때문", "학생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맹학교와 안마수련원 이료교육 담당 교사 총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오재영, 2005)에서도 학생의 이료 수업의 이해도에 대해 "보통이다" 52.7%,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1.3%,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다"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통이거나 대체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들은 응답했다.

이료교과 내용 자체가 고등부 수준의 시각장애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비롯한 기초 학력이 이료교과 학습을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맹학교 초등 및 중학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이료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학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도시각장애학생들은 학습을 위한 읽기보다는 각자에게 적합한 문해매체로 읽기를 위한 학습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데도 이료교과 수업을 받고 있을 수 있다.

### 3. 맹학교 성인학생의 생활지도

최근 이료재활과정을 설치한 이후 맹학교에 성인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약 30%가 이미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성인기 학생들로서 평균 연령이 38세이다. 전통적으로 맹학교에는 성인학생들이 재학했으나 그들은 대부분 선천성시각장애인이면서 입학 적령기를 지나 학교교육을 받은 경우인데 반해, 오늘날 맹학교의 성인학생은 대부분 직업생활을 하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직업재활을 위해 맹학교에 입학한 후천성 시각장애인이자, 이료재활과정이 우리나라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만 3세 유아부터 약 50세까지 지나치게 넓은 연령 범위의 학습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일반적인 학교 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교직원,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학생들, 즉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당한 혼란과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교사들이 성인 학생 특히, 교사보다 연령이 더 높은 학생을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교사가 학령기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인학생들에게 지시할 때 성인학생은 지시에 거부감을 느낄 개연성이 높다. 성인학생들은 의복, 대화주제, 음주와 흡연 등과 관련하여 성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데 반해, 맹학교의 학칙과 문화는 성인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아직 한계가 있다. 학령기학생들이 성인학

생들과 함께 생활함에 따라 너무 이른 시기에 성인의 생활양식을 접하게 되어 때로는 부정적인 모방을 할 수도 있다. 학령기 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맹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모든 연령의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웬지 독특한" 기관으로 낙인 될 수도 있다.

#### 4. 안마사의 낮은 학력 수준

우리나라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첫째, 특수학교(맹학교) 고등부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둘째,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안마수련기관(안마수련원)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맹학교 출신 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안마수련원 훈련생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지만 안마사 양성과정에서 안마사로 훈련되기 위한 기본 학력은 맹학교와 안마수련원에 상관없이 중학교 졸업이다. 이러한 자격기준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당시로서는 적절했다.

현행 안마사 자격인정 기준은 학력 상승 추세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진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학력이 과거에 비해 상향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자격 인정을 위한 학력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양성될 안마사는 그들이 만날 대부분의 시민들보다 학력이 낮게 될 것이다.

중학교 졸업을 기본 학력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기준은 안마업이 의료분야의 일부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의학대학원 설치, 3년제에서 4년제로 간호사 양성과정 전환, 3년제 물리치료사 양성과정 등에서 보듯이 법정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의 기본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며 점차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추세이다. 안마업을 의료법상 준 의료라고 할 때(권인희, 2005), 준 의료인의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학력도 법정의료인과 동일할 수는 없더라도 시대 흐름에 맞게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 5. 안마수련원의 열악한 교육여건

안마수련원은 1974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마사 약 2,400여명을 양성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안마사양성에 크게 공헌해 왔다. 그러나 안마수련원의 교육 여건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안마수련원은 대부분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의실과 실습실 이외에 다른 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료교육

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교재 및 교구도 부족하다. 1997년 이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인정받아 예산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그러한 예산은 주로 훈련생의 훈련비이다. 안마수련원은 시설 설비와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안마사를 양성하고 있다.

## 6. 이료교사 양성 제도와 이료관련 연구기반 부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이료교사 양성기관이 없다. 1996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료교사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37명의 이료교사를 양성하였고 지난 10년간 이료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도 부전공 연수가 실시되지 못했다. 다행히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오는 2007년 1월 제2기 이료교사 부전공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맹학교 이료교육 담당교사의 자격증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이료교육 담당 교사의 연령은 20-30대의 비중이 높고, 맹학교의 이료교사에 대한 수요는 이제 더 이상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료교사를 다수 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료교사 양성제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이료교사를 최소한 5-10명 정도 매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교사양성 체제에서 5-10명이라는 소수의 이료교사를 양성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료분야에 관한 연구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이료교육이 도입되어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간다. 이료교육은 거의 중단없이 지속되었고, 이료업은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면서 비록 침술업과 구술업은 회복시키지 못했을지라도 안마업은 보존해 왔다. 그러나 이료분야 연구기반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 오늘날 안마업마저 보존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 우리가 이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한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정 수준의 이료교육 내용,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이료교육 방법, 다양한 안마 기법, 수기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침과 전기기구 등의 활용 기법, 이료관련 임상효과, 안마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전략, 이료관련 법과 정책 등 다루어야 할 주제가 무수하다. 이료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 IV. 이료교육 제도의 발전 방안

### 1. 맹학교 고등부를 일반계열로 전환

우리나라 맹학교 고등부 과정을 모두 일반계열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현행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도 가능하다. 왜냐 하면 11-12학년의 경우,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 현재 편성, 운영하고 있는 전문선택교과(직업 즉 이료) 대신 심화선택교과를 학교교육계획 편성을 통해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부 과정을 일반계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 지도에 적합하다. 고등부의 일반 계열 전환은 점차 증가하는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라는 기회만 의지하여 준비 없이 대학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하여 비장애대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대학 졸업 후 각자 희망하는 분야로 진출하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초학력을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 고등부과정의 일반계열 전환은 안마업에 종사할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마업을 비롯한 이료분야의 내용은 분명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학력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에게 더 적절하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간은 결코 낭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안마업에 필요한 체력을 더욱 단련한다든지,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킨다든지,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맹학교 고등부를 일반계열로 전환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시각장애학생이 맹학교로 전학하거나 맹학교 고등학생이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등 맹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간에 다양한 통합 교류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맹학교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직업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을 맹학교 학교교육계획 편성시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맹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 중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0-40%였다(송미령, 2001; 이덕순, 1997; 이은열, 2002; 전국시각장애학교교장협의회, 2004). 이들이 이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진로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초등 및 중학 과정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 학급을 무학년제로 편성하고 생활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개별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고등부 과정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졸업 후를 대비하여 직업전기술 교육을 실시하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중심 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체제를 정비해 가야 한다.

## 2. 맹학교 전공과 중심의 안마사와 안마침사 양성

안마사와 안마침사를 맹학교 전공과에서 3년 과정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중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료교육 내용은 너무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안마업이 의료분야라는 점에서 볼 때, 이제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위한 최저 학력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전공과는 사실 고등학교의 심화과정으로 그 자체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보아야 하지만 전공과 입학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점과, 전공과 졸업생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료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안마사를 맹학교 전공과에서 3년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은 안마사의 기본 학력을 상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아직 고등부 본과에 보건의료과를 존속시키고 있는 학교가 전체 70개교 중 49개교이지만 고등부를 보통과(일반계열)로 전환시키면서 안마사, 침사, 구사 양성은 전공과가 중심이 된 지 오래이다. 1993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본과 보건의료과 졸업생의 합격률은 50% 정도인데 비해, 전공과 졸업생의 합격률은 90%를 상회한다고 한다(츠클마 기술대학교 후지 교수와의 면접, 2006. 7. 9).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서울맹학교, 대전맹학교, 부산맹학교, 청주맹학교, 강원명진학교 등 5개교에서 이료전공과를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맹학교에 3년제 전공과를 설치하고 그 대신 고등부 수준의 이료교육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전공과는 안마 과정과 안마침 과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안마사, 침사, 구사 등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세 종류의 이료관련 자격을 허용하면서 각 자격에 따른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안마사와 안마의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마사와 안마침을 이원화하여 양성하려면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안마사에 대한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 안마는 물론, 침술교육을 해 왔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교육계가 합의하여 추진한다면 결국 관계 법령 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안마업과 관련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안마 과정과 안마침 과정은 안마사 자격의 이원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아직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안마사와 안마침사를 양성하는 맹학교 전공과 운영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유, 초, 중, 고등 과정 학생들이 교육받는 건물과는 따로 구분하여, 성인이 대부분인 전공과 학생들이 교육받는 건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보행 능력과 지역사회 적응기술을 신장시킬 수 있기 위해 전공과 학생들은 맹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통학

하여야 한다.

- 성인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칙과 기타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각 학생을 안마 과정과 안마침 과정에 배치하기 위해 입학시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전문선택교과인 이료과목을 근간으로 하여 전공과 안마과정과 안마침과정 교육과정을 보완, 편성하여야 한다.
- 1학년 1학기에는 재활상담, 점자 또는 저시력기구를 활용한 문해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적 기술, 보행기술, 보조공학 기술 등 각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를 평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매학기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3학년에는 임상실습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 졸업 후 자영업 또는 취업을 대비하여 3학년에는 안마업 창업에 필요한 교과들도 공식적으로 편성한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맹학교 전공과가 이료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안마사 2,400여명을 배출했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201명의 중도시각장애성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안마수련원이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마수련원은 교육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고용촉진공단의 훈련장려금이 아니면 존속시킬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으며, 안마사뿐만 아니라 안마침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중도시각장애성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발전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적으로 10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미설치 지역이 많이 있고 현재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안마사 양성을 담당할 역량은 없다고 본다. 고용촉진공단은 권역별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와 관련된 직업훈련을 할 전문가가 없으며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이 현재 우리나라 중도시각장애성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맹학교는 우선 지역적으로 고르게 설립되어 있으며, 이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시각장애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축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조달하기에 유리하므로 안마사와 안마침사 양성을 주도하여야 한다. 맹학교의 역사를 볼 때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모두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해 왔다(임안수, 2005). 우리나라 맹학교는 보통교육을 위해서도 그 기능을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야 하지만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중심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맹학교 전공과가 지역중심, 평생교육적, 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하려면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축적하면서 각 지역의 안마사협회 지부, 복지관, 고용촉진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과 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고유기능이 있으며 기

관간 협력과 연계는 결국 중도시각장애성인의 총체적인 직업재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는 교육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점자와 보행을 지도하거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이료교육 준비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용촉진공단은 전공과를 졸업하는 안마사와 안마침사가 자영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취업 촉진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안마사협회 지부는 안마사와 안마침사들의 상호교류를 도모하면서 영업과 관련된 공동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맹학교는 이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하며 각종 자원을 조정, 집중시켜 중도시각장애성인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능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 3. 이료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우리나라 이료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이료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각 분야의 지식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고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료교육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관점을 넘어 전문교육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료 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립 시각장애인 기술대학교(가칭)를 설립하여 이료학과, 보조공학과, 재활학과 등 3개 학과를 설치한다. 보조공학과라 함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보급,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보조공학과는 각종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high tech뿐만 아니라 생활 용구와 같은 low tech 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시각장애재활학과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미국과 같이 재활교사, 보행전문가, 저시력치료사, 재활상담사 등을 각각 양성하는 것보다는 영국과 같이 일상생활기술, 보행기술 등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형 재활사(rehabilitation officer)를 모델로 하여(Dodds, 1996),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 일상생활기술 지도, 보행 지도, 저시력기술 지도, 보조공학기술 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통합형 재활교사(가칭)를 양성한다. 보조공학과와 재활학과는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을 1:3의 비율로 모집하고, 이료학과는 시각장애인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 시각장애인 기술대학교를 설립할 경우 이료 분야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라는 새로운 시각장애인 직종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4년제 대학 수준에서 이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3년제로 되어 있던 츠쿠바 기술대학을 2006년 4월, 4년제 츠쿠바 기술대학교로 승격시켰다. 츠쿠바 기술대학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산업기술학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건과학부로 조직되어 있다. 산업기술학

부는 디자인학과, 건축학과, 정보학과 등이 있으며 보건과학부는 보건학과(침구학 전공과 이학요법 전공), 정보시스템학과 등이 있다(<http://www.tsukuba-tech.ac.jp>). 즉, 일본 시각장애인은 츠크바 기술대학교 보건과학부 보건학과 침구학 전공 과정에서 4년제 수준의 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츠크바 기술대학교 보건과학부 보건학과(침구학 전공) 출신이든지, 맹학교 전공과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을 취득한다(츠크바 기술대학교 후 지교수와의 면접, 2006. 7. 9). 중국에서도 1987년 이후 4년제 창춘대학교(University In Changchun)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부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이료, 음악, 중국문학 그리고 중국 의학 등을 전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Vaughn, 1997).

이료분야를 현재보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수준의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이료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 정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이료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료 연구소도 설치하여 이료분야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안마사와 안마침사의 주된 양성기관은 맹학교 전공과로 하되 기술대학교 이료학과를 통해서도 안마침사 자격 취득과 함께 학사학위를 취득하며 성적과 희망에 따라서는 이료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료학과 졸업생의 경우 자영업할 수도 있으나 이료연구소와 연계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료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재활복지대학에 시각장애재활학부를 두고 그 안에 이료학과, 시각장애보조공학과, 시각장애재활학과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선결해야 한다. 한 가지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을 4년제 대학교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료학과의 입학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료 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이료대학교 설립이다. 이료분야의 전문가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료학과만을 별도로 하는 이료대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점차 시각장애인기술대학교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료대학 설립에 관하여 2005년 중단된 이료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시각장애학교교장단협의회가 내린 이료대학 설립 반대 입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료대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시각장애학교교장단협의회, 이료교육학회,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등이 참여하는 이료대학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시각장애 교육과 직업에 관련된 전문가, 시각장애인 당사자, 정부와 국회 관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이료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 V. 결 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적인 자립을 상당히 가능하게 했던 안마업마저도 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다시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각장애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둘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마 영업 형태를 개발하며 셋째, 유능한 안마사와 안마침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안마업 관련 위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료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료교육 현황을 고찰하였고 둘째, 우리나라 이료교육의 문제점을 규명하였으며 셋째, 우리나라 이료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료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이료교육 제도, 역사, 학생의 주요 특성 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이료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부적절한 맹학교 고등부 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의 부적합한 이료교육 내용, 맹학교 성인학생의 생활지도, 안마사의 낮은 학력수준, 안마수련원은 열악한 교육환경, 이료교사 양성제도와 이료관련 연구기반 부재등을 지적하였다. 유능한 안마사 양성을 위한 이료교육 제도 발전 방안으로서 연구자는 첫째, 맹학교 고등부 교육과정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교과로 편성한 일반계열로 전환시켜야 하고 둘째, 3년 과정의 맹학교 전공과에서 안마사와 안마침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셋째, 이료 분야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성세대 및 성장세대 시각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자의 비전(vision)이다.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재활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안을 토론하는 자세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이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모두 힘을 합쳐 시각장애인이 살아갈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권인희(2005).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김기창(2004). 맹학교 이료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영일(2006). 안마사 양성기관 학생의 특성 및 이료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 비교. **시각장애연구**, 22, 61-81.
- 김종환(2000). 시각장애학교 고등부 이료교육 지각에 관한 연구: 고등부 학생 및 이료과 교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산.

- 송미령(2001). 시각장애학교 중복장애유아 교육 실태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
- 오재영(2005). 안마사 양성 교육의 실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산.
- 이덕순(1997). 시각장애학교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현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산.
- 이은열(2002). 시각장애학교의 중복장애 학급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산.
- 임안수(2005). **시각장애아 교육**. 대구: 도서출판 해동.
- 전국시각장애학교교장협의회 (2004). 전국시각장애학교 중복장애 학생 현황. 전국시각장애특수학교 중복장애 교육연수자료(점자자료집, pp. 105-107), 청주맹학교.
- Dodds, A. (1996). The way we were: The genesis of training for specialist staff. *The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14(3). Retrieved September 27, 2004, from <http://www.rnib.org.uk>
- Sashida, C. et al. (2005).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 Tokyo, Japan: National Committee of Welfare for the Blind in Japan.
- Vaughn, C. E. (1997).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blindnes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ing Co.

K C I

## Proactive Strategies for Restructuring the Riryo Education System in Korea

Kim, Young-il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pose the strategies for proactively changing the riryo education system in Korea. The first section reviewed the riryo education system in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The next section identified the major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in riryo education, such as high school curriculum inappropriate for career guidance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riryo content unmatched with the academic readiness of such students, challenges in the guidance of adult students, low level in the academic degrees of masseurs, inadequate educational resources in massage training centers, and the absence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in the area of riryo. The following section proposed three strategies for restructuring the riryo education system as follows: (1) implementing the general track of curriculum in high school; (2) training masseurs and acupuncturists at the riryo department in the level of high school; and (3) establishing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area of riryo.

**Key Words:** current system of riryo education, problems with riryo education, strategies for developing riryo education